

생산비 절감만이 우리가 살길

양돈업을 한때, 아니 지금도 투기(投機)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여 한번만 들어 맞으면 떼돈(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가 팽배해져, 양돈업과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이 참여하여 아침의 강한 햇살에도 그만 시들어버리는 해바라기 생태처럼 많은 돈은 커녕 “앗차”하고 정을 다시고는 사라져 버렸던 이방인, 철새 양돈인들이 70년도말에서 80년도에 많이 유행을 하였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김 의 승
(본희 대전지부장)

대만사람들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할때 한 동네에 짜장면 100그릇을 파는 식당이 있으면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차린다고 한다. 같이 싸울때 50그릇씩 나누어 가지는 꼴이되기 때문이다. 어느 그릇에도 용량이 있다. 넘치면 물이 새기 마련

이다. 정원을 초과한 배는 침몰하고 만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죽는 것이다.

분수에 알맞는 규모만이 대외경쟁력 갖출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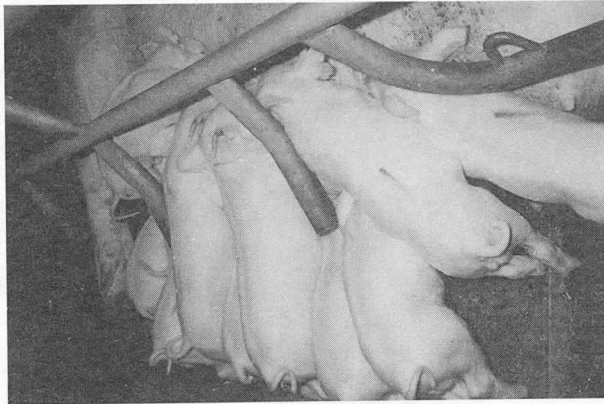
돼지가격이 또다시 폭락하고 있다. 연례 행사처럼 말이다.

혹자는 양돈의 매력을 굴곡(Curve)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당연한 주기(Cycle)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것은 70~80년대 얘기지,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파동이 지나고 돼지숫자가 줄기만 하면 가격이 치솟곤 하였지만 90년대에 와서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국산 돈공(豚公)들이 판을 칠 때였다. 94년부터는 미국의 냉장육이 엄습해 온다고 한다. 과도한 사육두수 증가는 자멸을 초래한다. 자기의 분수에 알맞는 규모만

이 어떤 태풍이 와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며 자기 집안 단속을 튼튼히하고 나서 대외경쟁력에 지지 않도록 기반을 닦아 놓아야겠다.

돼지가격 폭락원인은 사육두수, 출하두수 증가요인도 있지만, 뛰니해도 소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등 삼위일체 관계에서 어느 한 계층이 규율을 깨고 많은 자기 이익을 가지려고 할때, 반사적으로 소비에 대한 배신감과 거부반응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그 물품에 대하여 사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요에 대한 욕구불만으로 판매자 스스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마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산지 축사창고에선 정체현상이 풀리질 않아 12월 수요기에도 회복기미가 없어 돼지가격 하락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원칙에 의하지 않고서도 박리다매 현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자율적인 인하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제도적 모순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산지에서 90kg 규격돈 한마리가 92,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판매가격제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행정지도가격에서 연동제 가격제도하에선 그래도 생산자가격이 오르고 내린만큼 조정이 되었었다. 자율화가격 실시 이후부터는 소비자가격이 요지부동,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자율화 가격제도가 이처럼 위력 있는 것일까. 제도적 모순이 있으면 하루빨리 환원되어야겠다고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축산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도 끝났다. 수입쇠고기 증대가 우리나라 축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우 지키기 운동과 수입쇠고기 점포망 증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윤배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협 연쇄점마다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즉(即)

이 아는 사실이다.

농협이 30대제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니, 농민들의 가슴은 더 아프기만 하다.

우리나라 주부들의 27%만이 외국농축산물과 국내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우중에서도 70%가 젓소고기로 도축되고 있으니, 수입쇠고기, 젓소고기, 이것이 한우로 둔갑될 때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일까. 생산자,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이 뻔하다.

이웃나라였던 대만을 하루아침에 멀리하고 35년만에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오로지 외교에는 자국의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하였거늘, 앞으로 중국과의 농산물전쟁에서 얼마나 이익이 있을런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다. 중국에서 많은 농산품이 몰려오고 있다. 생선류에서부터 약초류, 죽제품 등 너무나 많이 수입되고 있다. 값싼 중국인삼이 국산인삼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 이 둔갑의 명수들은 과연 누구들인가? 그러면 왜 그들에게 둔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외국(수입)농산물 표시를 철저히 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더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수입 외국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16배 이상인 호주산 밀가루가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제과점과 분식을 파는 식당에선 손님들이 줄고 있다. 검역기관은 수입된 외국농산물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히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검역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깊게 생각해 볼만하다. 그래야만 외국농산물의 침범을 줄일 수 있는 행동표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우리 주부님께서 농촌을 살리고 애국하는 길은 외국농산물을 사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한 말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웃 일본도 완전 수입개방아래서도 외국농산물을 사먹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이 밀을 살리려는 운동과 함께 수입농산물의 쿼터를 꺾어 놓으려는 심산도 있을 것이다. 수입쇠고기 잠식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을 때에 수입쇠고기 가격을 15.8% 인상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상최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가격을 안정시



키기 위해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대폭 감축시켜야 하겠다.

수입돼지고기 통조림이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긴급관세율이 10%이하되어 수입기반 조성을 유리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며, 다시 20%로 환원,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연일 TV에선 내년도 우리의 축산업 장래가 암울하다고 보도된다. UR이 엄습해 와도 축산분야만큼은 더욱이 양돈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대처해 나갈런지, 걱정이 많다. 아직도 외국에 비해 높은 생산비, 가격 진폭률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부부가 1,000두 규모 농장 운영해야

무리한 축사규모 확대는 지양할 것이며, 모든 100두 규모의 농장에서 다른 인력에만 맡겨놓고 축주는 일주일에 한번씩 잠시 왔다가는 이런 농장은 원가절감은 커녕 산자수 6마리의 농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양돈은 사랑과 애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양돈은 진정한 양돈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이 생각할때, 아직도 20~30% 정도의 이방인 양돈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스스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부부간의 1,000두 규모 농장의 실현이 가능해질 때, 양돈의 기반은 더욱 튼



이기도 하다.

소비창출에 앞장서야

우리는 항상 소비창출에 앞서야겠다. 대만이 일본에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면서 일본내 수퍼마켓에 자비로 소비홍보를 하였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걸맞는 얘기다. 늘 그랬듯이 돼지고기 시식요리대회만이 홍보활동인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소비 패턴은 정육점 칼 도마 위와 식당의 삼겹살, 주물럭으로만 만들어지는가. 서독이 세계에서 돼지고기 소비율이 가히 5위권에 든다고 한다. 본인의 인적인 서독사람에 의하면 그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자기 집 뜰안(가든)에서 숯불구이를 피워놓고 온가족이 돼지고기 진미를 맛본다 한다. 우리가 옛날 구수한 콩치념새를 풍겼던 것과 연상할 때 우리도 어서 가서 돼지고기를 구워먹자는 서독인의 소비문화 창출을 생각해보면서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껴 보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이다.

값싸고 영양가 많은 돼지고기가 많이 팔릴때 우리의 생산원가를 줄이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

튼해지며, 바람직한 농장형태가 될 것이다.

돼지값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무제한 수매, 비축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실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모든 창고마다 외국농산물로 꽉 차 있어서 돼지고기가 들어갈 창고가 있는지 모르겠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교통이 두절되어 차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빨간 신호등을 들고 급히 달려온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교통이 소통되었을때, 그 교통 경찰관의 위력, 그것이 바로 정치다.

정부의 장기적인 축산구조지원정책도 좋지만, 급히 시간을 요하는 양축가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슬기롭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2차대전의 승리자요, 걸프전

도 승리로 이끌고, 소련을 굴복시킨 부시가 케네디에 이어 40대 기수인 클린턴에게 미국 대통령직을 물려주었다. 카터처럼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기본정책이 미국경제를 되살려 놓겠다고 일어섰으니 따라서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양돈업이 활발하다. '94년부터 수입될 냉장육이 우리의 양돈업계에 얼마나 타격을 줄런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해 나가야겠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진 돈사라도 양돈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면 빈 창고에 불과하다. 그리고 녹 쓴 철조망과 다름없다. 다행히도 여권 총재께서 부가가치세면세를 검토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허가축사 양성화의 실현 등 정부의 의지도 우리 축산인의 바람을 수렴한 결과